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7월 정기 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수양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선교회 회장을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오후 집회 후 수양회 준비위원 회의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옥수수를 판매합니다. 1망(20개)에 13,000원입니다.

전력량 10% 줄이기 - 7, 8월 교회 전력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줄이려 합니다. 실내온도는 26-28도를 유지하고 안 쓰는 공간의 전등은 꼭 꺼 주세요.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홍천 팔렐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정영선 허정호 백성래 홍춘숙 한숙경 임창선 이민범
 7/29 식 당 봉 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혜 이소애 이윤정 방극숙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 현우영 황영준 한기택 이종배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하진솔 김영아 노준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늘 분주히 일을 하고 쉴 때도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좀처럼 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우리가 가야할 곳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길을 가는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태풍과 여러 세상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연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온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붙잡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통과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준우 우순덕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재임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박병구 김정애 박숙영 변재민 이소혜 서수진 이윤석
 박안수 이정은 임주빈 최현옥 장대호 한숙경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정우선 정우선 조병익 조정연 주경진 이윤정 최미정 최윤희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감사헌금:

강미선 박숙영 송남우 황경화 이은실 무명5

녹색꿈헌금:

강세기 이소애 김용진 박효선 신진식 변혜정 우순덕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장혜숙	백혜숙	야외	수회방학
노순옥	박성희	노순옥	
최희영	최경미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이명희	
정경례	진정숙	정경례	
박홍재	곽권희	조영순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야외	
정영선	서정순	홍춘숙	
박혜경	조향미	정현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오래 되었네

나해철

오래 되었네/ 꽃 곁에 선 지

오래 되었네/ 물가에 앉은 지

오래 되었네/ 산길 걸어 큰 집 간 지

오래 되었네/ 여럿이서 공놀이 한 지

오래 되었네/ 사랑해 사랑해 속삭여 본 지

오래 되었네/ 툇마루에 앉아 한나절을 보낸 지

오래 되었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다정하게 불러 본 지

오래 되었네/ 산 밑 집에서 들을 바라보며 잠든 지

오래 되었네/ 고요히 있어 본 지

오래 되었네/ 고요히 고요히/ 앉아 있어 본 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서 깊이 되돌아보며 사십시오.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힘쓰며 사십시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아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와 무관한 일로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쉽게 남을 정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거울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폭풍 속의 요나 / 김재흥 목사 기도 : 이형숙 권사

다음 주 예배 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박영실 선생 안홍숙 권사

7월	영접위원	김인걸 허호범 윤성종 박성실 김윤정 김현주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순하게 살기

12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선한 행실에 감동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반응이지요. 두 번째 반응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위하는 데 매여 있는지라, 육신의 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성이 나서 우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이기적 욕망에 더욱 단단히 집착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헐뜯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세 번째 반응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이 어떠하든, 이웃인 그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니깐요. 그러나 만일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대로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13

접시나 쟁반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면 화가 납니까? 태풍이 불어 올 때 불안감을 느낍니까? 지붕의 기왓장들이 느슨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나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홍수가 졌을 때 밭에 심은 곡식들이 걱정이 됩니까? 밤중에 문빋장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강도가 들어오려고 저러는 건 아닐까 싶어 겁이 납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소유한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들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음식 담을 접시도 있어야 하고, 이

슬 가릴 지붕도, 밭에서 자라는 곡식도, 방 안에 두고 쓸 가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물건이 깨지거나 도둑맞거나 분실되면, 다시 채워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 채워주시면 언제 채워주실 것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지요.

14

어떤 사람은 동판을 두드리려 우아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정교한 장식을 새기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구를 만드는데 서로 다른 나무 조각을 튼튼하게 짜 맞추어서 누구도 떼어놓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물레를 돌려 실을 자아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옷감을 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 위에 돌을 얹어 담장을 쌓고요.

실로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술이 사람에게에는 있습니다. 그 기술을 습득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들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동판을 두드리거나 나무를 짜 맞추거나 담장을 쌓아올리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재물을 잘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하지요.

흔히 목수나 미장이들은, 부자들이 그런 기술을 익히기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제대로 부리려면 큰 지혜와 도덕이 있어야 해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그 기술을 끝내 습득 못하는지요. 그 기술을 습득하여 완벽하게 부리는 부자들이 얼마나 드문지요.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단순하게 살기」 중에서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389년 콘스탄티노플의 교구장이었으며 명설교가였다. 크리소스토무스는 ‘황금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